

‘소쇄원도’ 고증... 건축시기·조성기법 조명

〈瀟瀟園圖〉

전남대 천득염 교수팀 논문 1755년 제작 추정 목판화 분석 “송시열이 제작” 견해 반박 “현재의 소쇄원 다각도 조명”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원림인 담양 소쇄원(국가명승40호)은 16세기 양산보가 조성을 시작해 후손들에 의해 완성됐다. 남쪽으로 무등산이 보이고 주위에 광주호 상류가 위치해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어울려 풍류와 학문 도야의 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지금까지 소쇄원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양산보(1503~1557)와 후손, 16~17세기 당대 사회적 배경, 소쇄원을 이루는 공간 구성, 소쇄원의 가치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로 인해 내부의 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게 사실이다.

최근 소쇄원 내부 공간구성의 토대가 되는 소쇄원도(瀟瀟園圖)를 고찰해 소쇄원도의 제작자, 제작시기, 제작기법 등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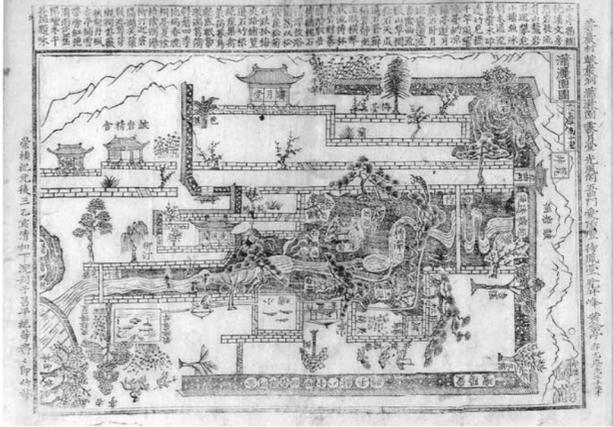
전남대 건축학과 천득염 교수를 주 저자로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이은정 씨, 문화재협동과정 석사과정 윤영주 씨가 ‘호남 문화연구’(62집)에 발표한 논문은 현재의 소쇄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구성의 원리를 고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천 교수는 “지금까지 목판 인쇄본인 ‘소쇄원도’가 인용만 됐을 뿐 누가 언제 만들었고, 어떤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인지 밝혀진 것은 없다. 현재의 ‘소쇄원도’는 1755년 제작된 목판화로 실제 정원의 모습을 담은 기록화”라고 밝혔다.

천 교수에 따르면 소쇄원도는 1755년 목재판에 양각을 주로 하고 부분적으로 음각을 가미한 목판화다. 기록화로서의 강함은 감상을 위해 제작된 그림이라는 것이다. 즉 소쇄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산보의 숨은 뜻을 표현하기 위해 판화기록으로 남겼다고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간 원림 담양 소쇄원의 모습.



1755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쇄원 목판화 1.

그러면서 천 교수는 “목판화의 원본이 되는 목판은 현재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우리가 접하는 목판화는 두 종류”라고 말했다.

이 두 목판화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글자의 유무다. ‘在阜平南十里’(재창평남십리), ‘瓮井’(옹정)이라는 두 글자가 목판화 1에는 있지만 목판화 2에는 없다. “창평으로부터 10리에 위치한다”는 뜻과 “독을 묻어서 만든 우물”이라는 뜻의 글

귀다.

“당시 창평의 치소(소재지)는 향교가 있는 광주호 부근에 있었지만 지금은 고서쪽에 위치한다. 그림1에서는 소쇄원이 당시 창평의 치소가 있던 위치에서 10리(4km) 거리에 있었지만, 이후 소재지가 옮겨지면서 지금은 약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十里’라는 표현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제작된 두 번째 그림에서는 글자를 모두 지웠다고 추

정된다.”

또한 목판화 1과 목판화 2는 제월당과 연못 쪽에 있는 나무가 조금 달라져 보인다. 담양의 구멍을 표현하는 것도 조금 차이가 난다.

이와 달리 소쇄원도의 조성연도는 목판화 좌측에 ‘崇禎紀元後三乙亥’(송정기원 후삼을해: 송정년인 1628년인데 그로부터 세 번째 을해년 즉 1755년)라는 표기로 짐작이 가능하다. 즉 제작연도가 1755년이라는 데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다.

또 하나 제작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목판화 우측에 ‘有尤庵先生手筆’(유우암선생수필)이라는 문구에서 송시열(1607~1689)이 제작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천 교수는 “송시열 생존연대와 소쇄원도의 제작시기가 맞지 않는다”며 “이는 소쇄원도를 송시열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암의 글씨가 소쇄원에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근거로 소쇄원도의 제작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문헌상 소쇄원을 소재로 노래했던 허서 김인후의 ‘소쇄원48영’(1548년)과 양산보의 5대손 양경지의 방암유고에 등장하는 ‘소쇄원30영’(1696년)이 등장하는 사실을 추정해보면 누군가는 소쇄원에 관한 그림을 주고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그림을 근거로 판화로 제작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천 교수는 이어 현재의 소쇄원 모습은 1755년과 거의 같다고 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의 나무가 죽어서 새로 나무를 심었다는 점이다. 목판화를 통해 소쇄원도의 제작기법은 원근법이나 부감법에 의하지 않고 단순화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건물의 배치도에서 흔히 나타나는 기법으로 건물 위치, 규모, 주위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설명해주는 형식이 되는 것이다.

천 교수는 “이번 ‘소쇄원도’ 고찰이 향후 소쇄원 연구에 보다 실증적이고 다양한 관점의 연구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고은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英 일간지 가디언에 해명글



고은은 또한 일 부에서 제기한 상 습적인 성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 했다. 고은은 “지 금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한

성추행 의혹으로 미투 논란이 됐던 고은(사진) 시인이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고은 시인이 구체적으로 자신을 변호한 내용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최영미 시인은 자신이 ‘괴물’에 대해 한 말과 글은 사실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고은의 작품을 영어권에 번역해 출판해온 영국의 출판사 블러드엑스(Bloodaxe)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일간지 가디언에 고은이 전해온 입장을 밝혔다.

고은은 블러드엑스의 닐 에스틀리 편집자를 통해 “최근 의혹들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것은 유감스럽다. 내 행동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고통에 대해서도 이미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 나는 진실이 밝혀지고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사실과 맥락이 바로 전달되지 않을 외국의 친구들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람으로서, 시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며 집필을 계속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 시인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괴물에 대해 매체를 통해 한 말과 글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조사하는 공식기구가 출범하면 나가서 상세히 밝혀겠습니다”라고 썼다. 최 시인은 방송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을 폭로했고, 최근 한 일간지에는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고은 시인은 최 시인의 폭로 이후 일간지에 ‘후배 문인을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오늘날에 비추어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뉘우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주민·어린이 국악교실 수강생 이달까지 모집

광주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 서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64기 국악문화학교 및 방과후 어린이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는 4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국악문화학교는 민요, 판소리, 가야금, 대금, 가야금병창, 장고, 고법, 해금 등 8개 강좌를 초·중급반으로 구분해 운영하며 초등학교생을 위한 방과 후 어린이강좌

도 가야금, 해금 2개 강좌가 운영된다. 수강을 원하는 주민 및 어린이는 오는 31일까지 빛고을국악전수관에 방문·전화신청하면 되며, 각 과별 20명 내외로 모집한다.

수강료는 3개월에 5만 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062-350-4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의기자 ej6621@kwangju.co.kr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작가·큐레이터 공모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제7기 입주 작가와 큐레이터를 공모한다.

입주 작가에게는 창작공간(스튜디오), 창작지원금,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올해는 지난해 3월 광주문화재단의 미디어아트 플랫폼(홀로그램극장·미디어 338·미디어아트 아카이브) 등이 구축됨에 따라 이 공간들과 연계한 기획전시, 시민 아카데미 등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간 교류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미디어아트 작가 외에 1개실

에 큐레이터를 모집, 입주해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한다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6명(팀), 지원 자격은 운영기간(4월 1일~12월 31일) 중 입주 공간에서 창작이 가능한 국내외 미디어아트 작가 및 큐레이터로, 타 레지던스 스튜디오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다.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는 홈페이지(www.gicf.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 창작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이메일(jwju0408@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749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성민요그룹 ‘여음’의 ‘희희낙락’ 공연 모습.

봄을 부르는 고운 소리...8일 ‘여음’ 공연

여성민요그룹 ‘여음’이 ‘喜喜樂樂희희낙락’ 공연을 준비했다. 오는 8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국악전수관이 열고 있는 목요상설 국악 한마당 초청 무대다.

여성민요그룹 ‘여음’은 한자 고을 여(麗), 소리 음(音)을 사용해 고운 소리를 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15년 결성됐다. 이들은 남도민요 계승을 위해 연구하고, 옛것을 지키고 남도민요를 발전시키기 위해 활동 중이다.

단가 ‘광대가’로 첫 문을 연다. 이어 남도 잡가 ‘흥타령’, 남도민요 ‘동백타령’,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 경기민요 ‘경기풍년가’, 신민요 ‘봄 노래’, 한국무용 ‘교방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는 신곡 신평구타령 ‘군밤타령’으로 마무리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궁금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국악전수관(062-350-4557)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의기자 ej6621@kwangju.co.kr

천만홀릭
커밍순
매주 금요일 밤 9시 30분

경리 이원석 신동엽 김기방 은지원

CHANNEL A